

접착제의 소개



TCC ADHESIVE TEAM

- 소나무에서 추출된 송진(수지)Rosin 이 접착제의 기원이 됨
- 석유화학 원료를 이용해 합성수지 (Resin) 합성 성공
- 이후 천연수지와 합성수지를 이용해 접착제 생산
- 현재는 Basepolymer와 합성수지 (Resin) 혼합하여 수많은 용도의 접착제를 생산 중이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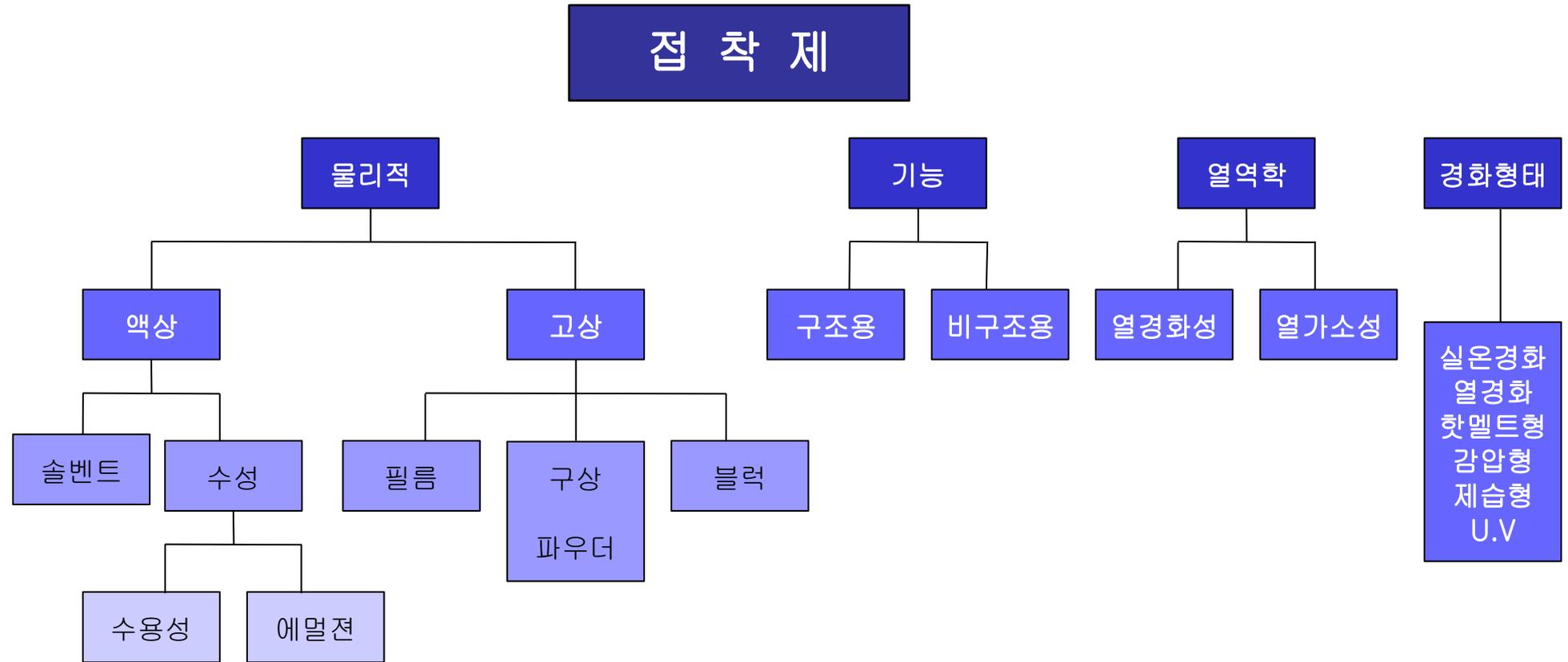
접착 (ADHESION)

- ▶ MACRO적인 2개의 물체(단, 기체는 제외)가 근접하여, 그 후 양자를 당겨 떼어내는데 어떠한 힘(또는 일)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상.
- ▶ 최종적인 사용면에 바로 도포하여 사용하며 일정 시간 경과 후 대부분 고체화 됨. (EX. 본드)
- ▶ 접착제와 피착제의 분리시 물리적 파괴 현상 발생.

점착 (TACK)

- ▶ 점착제가 점조액의 물질이며, 이것을 피착제에서 잡아 당겨낼 때에 점탄성적 변형에 어느 정도 힘을 필요로 하는 현상.
- ▶ 최종적인 사용면에 붙이기 이전 일반적인 가공 형태를 거쳐 보관 및 유통 되어지며 일정 시간이 경과 되어도 부착력이 살아 있음. (EX. LABEL, OPP TAPE 등)
- ▶ 일반적으로 붙였다, 떼었다 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님.





접착과정에 의한 분류) SOLVENT-SENSITIVE, PRESURE- SENSITIVE, TEMPERATURE- SENSITIVE, REACTION- SENSITIVE 등

기타) 용도별, 화학구조 별로 접착제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음.